

2016년 공동체 은행 빈고 운영활동 계획안 : 홍보

1. 2015년 평가

A. 페이스북

- 현재 빈고 개인 계정 친구는 369명,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는 665명. 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은 웹자보와 조합원 모임 홍보, 빈고 해방촌지점의 일정 혹은 취소 여부, 빈고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 링크 첨부으로 이루어져 있음. 혹은 폐친들이 빈고를 태그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공유함.

B. 빈고 홈페이지

- 운영회의록이나 재정 정산 내용, 조합원 모임 후기 등을 빼면 페이스북에 올라간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 다만 조회수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게시글을 클릭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방문자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덧. [이용활동] 게시판에서 과거에 올린 이용신청서는 [대출]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으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C. 뉴스레터

- 구성은 [빈고 활동 공유] [소식공유(공동체/개인조합원/신입 조합원소개)] [일정 공유(조합원 생일, 기념일 포함)] [자본현황 공유] 로 이루어져 있음.

D. 총평

- 홍보는 플랫폼이나 방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떤 콘텐츠를 홍보할 것인가가 더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조합원 모임이나 해방촌 지정 일정 여부들 같이 당장 알려야 할 시급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조합원들이나 예비조합원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5년에는 뉴스레터, 재무상당 후기, 조합원 모임 후기 말고는 딱히 그런 내용들이 잘 홍보되었던 것 같지 않다. 심지어 후기들은 페이스북에 올라가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빈고 게시판에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를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구분담금]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대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용]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이런 것들은 운영활동가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조합원 모임에 참석한 혹은 빈고를 이용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려주는 것도 [공동체 은행 빈고]를 홍보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된다.

2. 2016년 계획

- 2016년도 목표는 빈고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활동들을 잘 정리해보고, 그것을 조합원들과 예비 조합원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빈고는 재정공개도 투명하게 하고, 자본도 공유해서 쓰자는 게 목적인데, 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은 공유가 잘 안되는지 의문이므로 그것에 목표를 맞추려고 한다.

- 계획은 아주 러프한 것이므로 활동가 워크샵 때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

1. 먼저 어떤 내용이든 빈고 홈페이지 게시글 업로드 -> 페이스북에는 빈고홈페이지 링크 첨부 하고, 짤막한 내용(전체내용X) 쓰고 업로드 -> 빈고 홈페이지 게시글 클릭 할 수 있도록 유도.

2.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수 천명 만들기! (는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빈고 개인 계정보다는 페이지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

3.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타파하자!

‘지구 분담금이 뭐예요?’

‘왜 대출이 아니라 이용이예요?’

‘조합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왜 공동체 은행인가요?’

‘상임활동가와 운영활동가는 뭐가 달라요?’

조합원들의 질문을 받아서 정리하고 답변한 뒤 공유한다.

3. 이 달의 조합원 소개

-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는 다방면으로 굉장한 능력자들이 많다. 이렇게 대단한 조합원들이 어떻게 빈고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빈고랑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어떤지? 등을 인터뷰 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공감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4. 모든 모임이나 활동을 한 이후에는 조합원들에게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약간의 선물?) 공유한다. 그것을 잘 설득하고 받아내는 것이 홍보 활동가가 할일.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활동가들의 후기로 대체한다.

5. 홍보 활동가 본인은 실제 노트북에 포토샵 기능도 없고, 가독성 있게 만들지 못한다. 여러 방법들이 있을텐데 1번, 노트북에 포토샵을 설치하고, 다른 단체에서 열리는 활동가 웹자보 만들기 워크샵 등에 참가하고 실력을 키운다. (워크샵 참가비 지원) 2번, 내부 활동가들에게 전수받는다. 3번, 웹자보는 다른 외부 활동가(좌인)에게 부탁한다.

6. 현재 뉴스레터의 구성 방식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번에 읽기는 어려운 것 같다.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고민이다.

7. 조합원 모임 등 조합원의 활동 참여를 바라는 모든 내용은 시작하는 날짜 1주일 전에는 공지하는 것을 꼭 지킨다.